

#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 -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

### Relations among Personal,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 - Focused on the Workers in the Banwol-Siwha Industrial Complex -

최명화, 최수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Myung-Hwa Choi(mwsarang5629@hanmail.net), Soo-Il Choi(sichoi47@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하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80부였고, 이중 결측값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차이검정,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건강상태가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 학력, 월 평균수입, 종교, 그리고 자녀수가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직무만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업몰입은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분석에서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중심어 : | 성공적 노화 | 노후준비 |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준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eneral concept and preparation process for successful aging. At the same time another object is to find out factors which were affecting influences on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28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over 40 years-old workers working in Banwol and Siwha industrial complex in Kyeonggi-do. Using 261 questionnaire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were executed with SPSS 18.0 to fulfill the purposes.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ealth cond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preparation for old age, but age, educational career, monthly income, religion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d partially positive effects.

Second,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hysic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for old age, but job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al preparation only.

Third, Age, educational career, spouse, religion, health condition and the number of children showed different effects on those preparations.

■ keyword : | Successful Aging | Preparation for the Old Age | Economical | Physical | Social Preparation |

## I. 서론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률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가치관’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의 사는 현상을 축복이라는 의견이 28.7%, 그저 그렇다 28.0%, 그리고 축복이 아니다가 43.3%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낮게 나왔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의 노인문제 때문이 30.6%,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4.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공적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이 성공적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알려진 반월·시화 공단지역의 중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 근로자들이 성공적 노화를 맞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가를 밝히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둘째, 그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로 질병이 없거나 이병성(罹病性)이 없는 상태, 높은 인지능력, 그리고 활동적인 삶에의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세 가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들은 위계적인 순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즉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가 더 쉽고,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유지는 적극적인 삶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1]는 의미이다.

Baltes와 Baltes[2]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Laditka등[3]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 민족/인종 구별 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장수, 육체적 건강, 긍정적인고 적극적인 심적 상태, 정신적 명료성,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인 것을 확인하였다.

홍현방[4]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특성을 추출해냈으며, 이들은 첫째, 성공적인 노화는 개별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들을 종합한 통합적인 것이고 둘째, 성공적인 노화는 계속되는 발달 과정 즉, 많은 연구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삶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 수명이 많이 연장된 현대의 노인들에게는 미래의 삶도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결과가 아닌 계속되는 발달의 과정이다. 셋째, 성공적인 노화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성숙 혹은 지혜로서 자아통합이며 넷째, 성공적인 노화에 이르는 단일한 방법은 없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며 다섯째, 성공적인 노화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화에는 사회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그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들을 심리적 발달,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 부분으로 형성하였다.

강인[5]은 성공적노화의 구성요소로서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을 들고 있고, 백지현·최혜경[6]은 일상의 순조로움, 자

기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과시성을 주장하였으며, 성혜영·조희선[7]은 생산적 활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양한 사회관계망과 지지기반의 확보를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크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적극적 사회에의 참여, 그리고 경제적 안정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 요소들을 잘 준비하여 성공적 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체적 노후 준비부문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감소되고 건강도 및 건강체력 수준이 저하되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노인의 건강인지율(자신의 건강상태가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양호함)이 2004년도 33.7%에서 26.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인의 신체기능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 : instrumental ADL)에서도 각각 노인의 11.4%와 27.0%가 장애를 보여, 2004년의 ADL8.2%와 IADL22.2%보다 저하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수는 2010년 약 469천명(65세 이상 노인의 8.8%)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신체 및 인지기능장애를 지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과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상태 유지와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적 노후준비이며, 노후의 삶에서 역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노년기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이론 중 하나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노년학 분야에서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활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역할(role)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갖게 되는데, 노인의 경우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로 상실된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8].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완전하게 확신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은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치료비, 회복기의 간호, 환자 수송 같은 가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건강에 필요한 규범을 잘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음주, 흡연, 과식을 비롯한 건강을 해치는 여러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 있는 사실은 사회적 자본은 질병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생리학적 촉매장치로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다[9].

박길성[10]은 특정개인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나 지지 등과 같은 사회자본을 획득하는 기제가 되며, 사회자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람들은 삶의 질이 향상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고, 박희봉·이희창[11]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비교분석에서 한국인의 개인적 삶의 만족에는 개인의 경제적인과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사회자본 요인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서 가족의 역할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홍성희 등[12]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퇴직으로 인한 역할변화로 부부의 시간공유가 많아지고, 동반자적인 친구 같은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가사노동이 보다 공평하게 분담되며 상호정서적인 의존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가족역할은 배우자 못지않게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노부모와 자녀 관계가 애정과 친밀감으로 이루어질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과 가족으로의 통합이 요구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가족의 역할변화로 인해 가족이 부부 상호간, 자녀 중심으로 변하면서 정서적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 이외의 영역에서도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노인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3].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부문이다. 노후 생활

에 있어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생활비 및 정서적, 심리적 위축, 가족구성원이나 친구관계, 건강상의 문제, 여가활동 불능, 자존감의 하락 등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인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제력은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관계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많다[14-17].

특히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은퇴 후의 소득 예측을 통해 지출부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한다

## 2.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인구사회학적 변인

#### 가. 성(性)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노후준비에서의 성별차이는 노후준비영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건강관리에 보다 적극적이며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21], 반면, 황승일[22]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노후준비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인 측면의 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25]. Kilty와 Behling[26]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대비수준이 높으며 이는 남성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여성은 가족문제를 염려해서 의식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나. 연령

연령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살아 온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연령은 한 사람의 삶의 경로 속에 있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27]. 연령에 따라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며,

자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28],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29-31].

강유진[1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문조·전귀연[32], 강유진[13], 최정숙[33]등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준비의 경우 40대보다 20, 30대의 젊은 층이 오히려 노후대비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34]. 이것은 40대 중년층은 자녀교육의 지출이 많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맡은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노후준비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문을[35]의 연구에 의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30대 순서로 나타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의 생활 계획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많은 연구들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주거영역 등 노후준비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지민선[31], 송명숙[36]의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노후 준비에, 김기태[30]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에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양순미·홍숙자[37], 김병윤[38], 성말순[39]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노후 준비에 관련된 연령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40]. 이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월 소득

대부분의 연구에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

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말순[3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전체 노후준비에, 조추용등[41]과 유인순·최수일[4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전체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남순[2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았다. 또한 지민선[3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준비에 김병윤[38], 송명숙[36], 김기태[30]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그 결과가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월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을 살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임경자[18], 임희정[43]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규칙적 식생활, 충분한 영양섭취 및 적당한 운동등 적극적으로 신체를 관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민선[31]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경제적, 정서적, 여가 생활준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임희정[43]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서적 건강상태가 노후 준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다 활발히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및 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바. 배우자 유무

가족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황승일[22]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강영숙[44]의 연구 결과에서는 미혼자가 여가생활 준비 및 자기개발 활동을 더 잘하며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사. 부모부양

강유진[13]의 연구에서는 노후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부양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73.8%), 자식과 동거하며 부양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승희[45]의 연구 논문에서는 노부모 부양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촌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순미·홍숙자[37]의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책임이 부모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나타났고, 보부모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요인이 노후준비의 경제적 영역, 정서적 영역, 그리고 여가영역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유진[13]과 신승희[45]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 양육 자녀 수

가족관련 변인으로서 자녀수는 성말순[39]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2명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양 태도 및 신체적 준비와 전체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병윤[38], 김기태[30], 지민선[31]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직업특성

가. 직업만족

일반적으로 퇴직 전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을 원하지 않으며,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Kilty & Behling[26]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있다[37]. 은퇴기대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한 Gee와 Baillie[46]는 직업몰입도가 ‘강요된 좌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직업에 애정을 보이는 사람은 은퇴 이후의 삶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아[47]와 호정화[48] 그리고 신계수·조성숙[49]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와 은퇴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은퇴전 직업만족도에 따라서 퇴직 후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7]. 한편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은퇴계획을 덜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Richardson[25]과 Kilty[26]는 자신의 직업에 매우 헌신적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은퇴계획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 직업몰입

직업몰입(occupational commitment)이란 개인적 직업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동일시하며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50],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직업몰입은 그 동안 학문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51] 아직까지 그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업몰입이 조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들과 함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52].

Havigurst[53]는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일은 개인에게 정체감을 심어주며, 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은 사회적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개인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의 직장인 동료들끼리 규칙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한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직장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공동체의 감정을 느끼며, 일에 대해서는 상부상조와 호혜성의 규범을 누린다[54].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지니는 태도이며, 은퇴가 직업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가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5]. 이러한 영향은

은퇴준비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이 주를 이루고 직업특성 변수가 극히 소수가 발견되고 그 외에도 생활양식(life style)[56]을 다룬 논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은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반월·시화공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하여 인구사회적 특성과 직업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월평균 수입, 건강상태, 부모 부양여부 및 자녀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구 분          | 빈도 (%)     |
|---------|--------------|------------|
| 성별      | 남성           | 163 (62.5) |
|         | 여성           | 98 (37.5)  |
| 연령      | 40-45세       | 129 (49.4) |
|         | 46-50세       | 87 (33.3)  |
|         | 51세 이상       | 45 (17.3)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 128 (49.0) |
|         | 전문대/대학교 졸업이상 | 133 (51.0) |
|         | 200만원 미만     | 83 (31.8)  |
| 월평균 수입  | 200-300만원미만  | 108 (41.4) |
|         | 300만원 이상     | 70 (26.8)  |
| 배우자 유무  | 없다           | 52 (19.9)  |
|         | 있다           | 209 (80.1) |
| 종교 유무   | 없다           | 154 (59.0) |
|         | 있다           | 107 (41.0) |
| 건강상태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16 ( 6.1)  |
|         | 그저 그렇다       | 71 (27.2)  |
|         | 건강한 편이다      | 174 (66.7) |
| 부모 부양여부 | 안 한다         | 193 (73.9) |
|         | 한다           | 68 (26.1)  |
| 자녀수     | 없다           | 65 (24.9)  |
|         | 1명           | 63 (24.1)  |
|         | 2명           | 111 (42.5) |
|         | 3명 이상        | 22 ( 8.5)  |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근로자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부서장의 도움을 받아 4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한 곳에 모아 참여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8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결측 값이 있는 19부를 제외한 총 261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개념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과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t검증(t-test),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타당성분석 및 신뢰성의 검증결과는 [표 2]와 같으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2.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 변수     |          | <고유치> | 누적분산(%) | 신뢰계수(a) |
|--------|----------|-------|---------|---------|
| 직업 특성  | 직업 만족도   | 3.64  | 40.04   | .904    |
|        | 직업 몰입    | 3.05  | 74.27   | .885    |
| 노후 준비도 | 경제적 노후준비 | 3.89  | 21.60   | .871    |
|        | 신체적 노후준비 | 3.61  | 41.64   | .851    |
|        | 사회적 노후준비 | 3.06  | 58.65   | .789    |

3. 측정도구

변수의 측정은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직업만족도, 직업몰입도, 노후준비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 변인       | 측정도구의 설계   | 문항수  |                 |
|----------|--|--|-----------------|
| 직업특성     | 직업만족   | 이도화(1996), 배문조(2005) 등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 5문항             |
|          | 직업몰입   | 윤승제(2007), 최수일(2007) 등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 5문항             |
| 노후준비도    | 신체적·경제적·사회적준비  | 신승희(2010), 이정화(2009), 여미영(2009), 김주성·최수일(2010) 등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 21문항<br>(각 5문항) |
| 인구사회적 변수 | 성,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월평균 수입, 건강상태, 부모부양여부, 그리고 양육자녀의 수 |  | 11문항            |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적특성에 따른 직업특성 및 노후준비도의 차이검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특성 차이

다음 [표 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특성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 만족도의 경우 성별과 연령, 학력, 종교 유무 및 부모 부양여부를 제외하고 월평균 수입,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수입에서는 200만원~300만원 미만(M=2.99)에 비해 300만원 이상(M=3.31)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M=2.65)보다 있는 경우(M=3.20)가 직업에 더 만족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M=2.88) 또는 그저 그렇다(M=2.85)인 경우에 비해 건강하다(M=3.21)인 사람들의 직업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자녀수에 있어서는 한 명도 없는 경우(M=2.76)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M=3.33)들의 직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몰입은 성별과 연령, 부모 부양여부 및 자녀수를 제외하고 학력, 월평균 수입,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및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M=3.25)보다 전문대 혹은 대학교 졸업이상(M=3.46)에서 직업 몰입도가 더 높았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M=3.27)과 200만원~300만원 미만(M=3.22)에 비해 300만원 이상(M=3.68)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M=3.07)보다 있는 사람(M=3.43)이 직업에 더 몰입하고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집단(M=3.26)에 비해 종교가 있는 집단(M=3.49)에서 직업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M=3.20)이거나 그저 그런 편(M=3.13)인 사람들에 비해 건강한 편(M=3.46)인 사람들의 직업 몰입도가 더 높은 경향이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특성 차이

| 구분      | 직업 만족도           |      | F/t | 직업 몰입    |      | F/t |          |
|---------|------------------|------|-----|----------|------|-----|----------|
|         | M                | SD   |     | M        | SD   |     |          |
| 성별      | 남성(n=163)        | 3.08 | .83 | -0.245   | 3.43 | .86 | 1.750    |
|         | 여성(n=98)         | 3.11 | .83 |          | 3.24 | .79 |          |
| 연령      | 40~45세(n=129)    | 3.11 | .80 | 0.331    | 3.36 | .82 | 0.535    |
|         | 46~50세(n=87)     | 3.04 | .87 |          | 3.30 | .89 |          |
|         | 51세 이상(n=45)     | 3.15 | .84 |          | 3.46 | .78 |          |
| 학력      | 고졸이하(n=128)      | 3.04 | .76 | -1.075   | 3.25 | .67 | -2.062*  |
|         | 전문대/대졸이상(n=133)  | 3.15 | .89 |          | 3.46 | .96 |          |
| 월평균 수입  | 200만원미만(n=83)    | 3.05 | .75 | 3.389*   | 3.27 | .63 | 7.537**  |
|         | 200~300만원(n=108) | 2.99 | .79 |          | 3.22 | .78 |          |
|         | 300만원이상(n=70)    | 3.31 | .94 |          | 3.68 | .83 |          |
| 배우자 유무  | 없다(n=52)         | 2.65 | .77 | -4.492** | 3.07 | .96 | -2.818** |
|         | 있다(n=209)        | 3.20 | .81 |          | 3.43 | .79 |          |
| 종교 유무   | 없다(n=154)        | 3.02 | .87 | -1.732   | 3.26 | .87 | -2.214*  |
|         | 있다(n=107)        | 3.20 | .75 |          | 3.49 | .78 |          |
| 건강 상태   | 건강하지 않다(n=16)    | 2.88 | .51 | 5.405**  | 3.20 | .59 | 4.366*   |
|         | 그저 그렇다(n=71)     | 2.85 | .81 |          | 3.13 | .79 |          |
|         | 건강하다(n=174)      | 3.21 | .84 |          | 3.46 | .86 |          |
| 부모부 양여부 | 안 한다(n=193)      | 3.06 | .84 | -1.046   | 3.30 | .86 | -1.822   |
|         | 한다(n=68)         | 3.18 | .79 |          | 3.51 | .76 |          |
| 자녀수     | 없다(n=65)         | 2.76 | .82 | 4.966**  | 3.18 | .96 | 1.700    |
|         | 1명(n=63)         | 3.17 | .91 |          | 3.39 | .73 |          |
|         | 2명(n=111)        | 3.19 | .73 |          | 3.40 | .79 |          |
|         | 3명 이상(n=22)      | 3.33 | .83 |          | 3.59 | .94 |          |
|         |                  |      |     |          |      |     |          |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a, b는 scheff 검증결과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이상의 결과에서 직업 만족도와 직업 몰입 모두에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월평균 수입과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및 자녀수로서,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건강할 뿐 아니라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단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성별과 연령, 부모 부양여부를 제외하고 학력, 월평균 수입,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건강상태 및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M=3.29)보다 전문대 혹은 대학교 졸업이상(M=3.49)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M=3.25)에 비해 300만원 이상(M=3.60)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M=3.10)보다 있는 사람(M=3.47)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M=3.30)에 비해 종교를 가진 사람(M=3.52)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M=2.99) 또는 그저 그렇다(M=3.15)인 집단에 비해 건강하다(M=3.53)인 사람들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또한 자녀수가 한 명도 없는 집단(M=3.19)에 비해 1명(M=3.40), 2명(M=3.49), 3명 이상인 집단(M=3.49)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들이나 성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는 선행연구들[20][43], 등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반월·시화지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표 5]와 같다. 신체적 노후준비도의 경우 성별과 학력, 월평균 수입, 종교 유무 및 부모 부양여부를 제외하고 연령,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및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45세(M=3.03)에 비해 51세 이상(M=3.37)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51세 이상에서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집단(M=2.94)보다 있는 집단(M=3.22)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M=2.82) 또는 그저 그렇다(M=2.88)인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다(M=3.32)인 사람들이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수가 한 명도 없는 사람(M=2.91)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M=3.41)들이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성별과 연령, 종교 유무 및 부모 부양여부를 제외하고 학력, 월평균 수입,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M=3.45)보다 전문대 혹은 대학교 졸업이상(M=3.62)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M=3.37)에 비해 300만원 이상(M=3.72)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M=3.28)보다 있는 사람(M=3.60)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M=2.84)인 사람들에 비해 그저 그렇다(M=3.38)이거나 건강하다(M=3.67)인 사람들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녀수가 한 명도 없는 집단(M=3.41)과 1명인 집단(M=3.37)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단(M=3.91)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신체적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직업 만족도, 직업 몰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적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표 5][표 6]과 같이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건강상태, 부모 부양여부 및 자녀수 중에서 연령( $\beta=.148, t=2.332, p<.05$ )과 건강상태( $\beta=.136, t=2.214, p<.05$ ), 자녀수( $\beta=.222, t=2.826, p<.01$ )가 신체적 노후 준비도에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차이

| 구분       | 신체적 노후 준비도        |                        | F/t                   | 사회적 노후 준비도             |                       | F/t                    | 경제적 노후 준비도            |    | F/t |
|----------|-------------------|------------------------|-----------------------|------------------------|-----------------------|------------------------|-----------------------|----|-----|
|          | M                 | SD                     |                       | M                      | SD                    |                        | M                     | SD |     |
| 성별       | 남성 (n=163)        | 3.21 .71               | 1.289                 | 3.56 .59               | 0.748                 | 3.44 .66               | 1.461                 |    |     |
|          | 여성 (n=98)         | 3.09 .73               |                       | 3.50 .63               |                       | 3.32 .65               |                       |    |     |
| 연령       | 40-45세 (n=129)    | 3.03 <sub>b</sub> .80  | 4.961 <sup>**</sup>   | 3.50 .82               | 0.550                 | 3.32 .80               | 1.791                 |    |     |
|          | 46-50세 (n=87)     | 3.26 <sub>ab</sub> .87 |                       | 3.57 .89               |                       | 3.47 .87               |                       |    |     |
|          | 51세 이상 (n=45)     | 3.37 <sub>a</sub> .84  |                       | 3.59 .78               |                       | 3.46 .84               |                       |    |     |
| 학력       | 고졸이하 (n=128)      | 3.19 .64               | 0.445                 | 3.45 .59               | -2.29 <sup>8*</sup>   | 3.29 .63               | -2.53 <sup>4*</sup>   |    |     |
|          | 전문대/대졸이상 (n=133)  | 3.15 .79               |                       | 3.62 .60               |                       | 3.49 .68               |                       |    |     |
| 월평균 수입   | 200만원 미만 (n=83)   | 3.08 .73               | 1.675                 | 3.37 <sub>b</sub> .64  | 6.720 <sup>*</sup>    | 3.25 <sub>b</sub> .67  | 5.681 <sup>**</sup>   |    |     |
|          | 200-300만원 (n=108) | 3.16 .68               |                       | 3.55 <sub>ab</sub> .58 |                       | 3.37 <sub>ab</sub> .62 |                       |    |     |
|          | 300만원 이상 (n=70)   | 3.29 .74               |                       | 3.72 <sub>a</sub> .54  |                       | 3.60 <sub>a</sub> .66  |                       |    |     |
| 배우자 유무   | 없다 (n=52)         | 2.94 .60               | -2.59 <sup>0**</sup>  | 3.28 .60               | -3.58 <sup>1***</sup> | 3.10 .74               | -3.66 <sup>0***</sup> |    |     |
|          | 있다 (n=209)        | 3.22 .74               |                       | 3.60 .58               |                       | 3.47 .62               |                       |    |     |
| 종교 유무    | 없다 (n=154)        | 3.13 .75               | -1.12 <sup>8</sup>    | 3.51 .64               | -0.84 <sup>7</sup>    | 3.30 .69               | -2.68 <sup>4**</sup>  |    |     |
|          | 있다 (n=107)        | 3.23 .66               |                       | 3.58 .55               |                       | 3.52 .59               |                       |    |     |
| 건강 상태    | 건강하지 않은편 (n=16)   | 2.82 <sub>b</sub> .89  | 12.23 <sup>2***</sup> | 2.84 <sub>b</sub> .84  | 19.63 <sup>3***</sup> | 2.99 <sub>b</sub> .47  | 2.430 <sup>***</sup>  |    |     |
|          | 그저 그런편 (n=71)     | 2.88 <sub>b</sub> .58  |                       | 3.38 <sub>a</sub> .48  |                       | 3.15 <sub>b</sub> .64  |                       |    |     |
|          | 건강한 편 (n=174)     | 3.32 <sub>a</sub> .71  |                       | 3.67 <sub>a</sub> .56  |                       | 3.53 <sub>a</sub> .64  |                       |    |     |
| 부모 부양 여부 | 안한다 (n=193)       | 3.21 .69               | 1.784                 | 3.52 .59               | -1.03 <sup>8</sup>    | 3.40 .62               | 0.087                 |    |     |
|          | 한다 (n=68)         | 3.03 .78               |                       | 3.60 .60               |                       | 3.39 .77               |                       |    |     |
| 자녀 수     | 없다 (n=65)         | 2.91 <sub>b</sub> .66  | 4.919 <sup>**</sup>   | 3.41 <sub>b</sub> .56  | 6.999 <sup>**</sup>   | 3.19 <sub>b</sub> .76  | 3.143 <sup>*</sup>    |    |     |
|          | 1명 (n=63)         | 3.13 <sub>ab</sub> .72 |                       | 3.37 <sub>b</sub> .68  |                       | 3.40 <sub>a</sub> .60  |                       |    |     |
|          | 2명 (n=111)        | 3.29 <sub>ab</sub> .71 |                       | 3.64 <sub>ab</sub> .51 |                       | 3.49 <sub>a</sub> .61  |                       |    |     |
|          | 3명 이상 (n=22)      | 3.41 <sub>a</sub> .73  |                       | 3.91 <sub>a</sub> .63  |                       | 3.49 <sub>a</sub> .68  |                       |    |     |

\* $p<.05$ , \*\* $p<.01$ , \*\*\* $p<.001$ .  
a, b는 scheff 검정결과.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영향을 미치고, 이들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 $R^2$ )은 11.1%였다. 이는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수가 많을수록 건강을 위해 체중관리를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 및 운동, 충분한 휴식은 물론, 신체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 단계 | 1단계      |         | 2단계      |         |
|----------------|-----------------------|----|----------|---------|----------|---------|
|                |                       |    | $\beta$  | t       | $\beta$  | t       |
| 인구사회학적<br>특성   | 성별 <sup>1)</sup>      |    | -.069    | -1.034  | -.089    | -1.316  |
|                | 연령                    |    | .148     | 2.332*  | .155     | 2.448*  |
|                | 학력                    |    | -.113    | -1.789  | -.112    | -1.772  |
|                | 월평균 수입                |    | -.012    | -0.166  | -.016    | -0.224  |
|                | 배우자 유무 <sup>2)</sup>  |    | -.107    | -1.325  | -.145    | -1.762  |
|                | 종교 유무 <sup>3)</sup>   |    | .023     | 0.364   | .022     | 0.356   |
|                | 건강상태                  |    | .136     | 2.214*  | .118     | 1.898   |
|                | 부모 부양여부 <sup>4)</sup> |    | -.114    | -1.896  | -.113    | -1.877* |
|                | 자녀수                   |    | .222     | 2.826** | .217     | 2.776** |
| 직업특성           | 직업 만족도                |    |          | .136    | 2.143*   |         |
|                | 직업 몰입                 |    |          | -.014   | -0.230   |         |
| F              |                       |    | 3.487*** |         | 3.307*** |         |
| R <sup>2</sup> |                       |    | .111     |         | .127     |         |
| $\Delta R^2$   |                       |    |          |         | .016     |         |

\* $p < .05$ , \*\*\* $p < .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배우자 유무(없다=0, 있다=1), <sup>3)</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4)</sup>부모 부양여부(안한 다=0, 한다=1)

적 노후론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등 신체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 $\beta=.155$ ,  $t=2.448$ ,  $p<.05$ ), 자녀수( $\beta=.217$ ,  $t=2.776$ ,  $p<.01$ )와 직업특성의 직업 만족도( $\beta=.136$ ,  $t=2.143$ ,  $p<.05$ )가 신체적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더 많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준비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2.7%로 1단계보다 1.6%( $\Delta R^2=.016$ ) 증가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사회적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직업 만족도, 직업 몰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월평균 수입( $\beta=.139$ ,  $t=2.034$ ,  $p<.05$ )과 건강상태( $\beta=.325$ ,  $t=5.478$ ,  $p<.001$ )가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7.7%였다. 이 결과는 월평균 수입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동창회, 친목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이나 강습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 $\beta=.309$ ,  $t=5.158$ ,  $p<.001$ )만이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대하여 직업특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준비를 하기 위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8.9%로 1단계보다 1.2%( $\Delta R^2=.012$ ) 증가하였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 단계 | 1단계                  |                      | 2단계                  |                      |
|----------------|-----------------------|----|----------------------|----------------------|----------------------|----------------------|
|                |                       |    | $\beta$              | t                    | $\beta$              | t                    |
| 인구사회학적특<br>성   | 성별 <sup>1)</sup>      |    | .090                 | 1.391                | .086                 | 1.316                |
|                | 연령                    |    | -.074                | -1.210               | -.066                | -1.073               |
|                | 학력                    |    | .078                 | 1.280                | .071                 | 1.165                |
|                | 월평균 수입                |    | .139                 | 2.034 <sup>*</sup>   | .126                 | 1.845                |
|                | 배우자 유무 <sup>2)</sup>  |    | .066                 | 0.853                | .046                 | 0.582                |
|                | 종교 유무 <sup>3)</sup>   |    | -.029                | -0.478               | -.041                | -0.670               |
|                | 건강상태                  |    | .325                 | 5.478 <sup>***</sup> | .309                 | 5.158 <sup>***</sup> |
|                | 부모 부양여부 <sup>4)</sup> |    | .103                 | 1.772                | .092                 | 1.570                |
|                | 자녀수                   |    | .082                 | 1.086                | .076                 | 1.008                |
| 직업특성           | 직업 만족도                |    |                      |                      | .086                 | 1.408                |
|                | 직업 몰입                 |    |                      |                      | .080                 | 1.338                |
| F              |                       |    | 6.000 <sup>***</sup> |                      | 5.281 <sup>***</sup> |                      |
| R <sup>2</sup> |                       |    | .177                 |                      | .189                 |                      |
| $\Delta R^2$   |                       |    |                      |                      | .012                 |                      |

<sup>\*</sup> $p < .05$ , <sup>\*\*\*</sup> $p < .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배우자 유무(없다=0, 있다=1), <sup>3)</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4)</sup>부모 부양여부(안한다=0, 한다=1)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 단계 | 1단계                 |                    | 2단계                  |                      |
|----------------|-----------------------|----|---------------------|--------------------|----------------------|----------------------|
|                |                       |    | $\beta$             | t                  | $\beta$              | t                    |
| 인구사회학적특<br>성   | 성별 <sup>1)</sup>      |    | -.001               | -0.018             | -.032                | -0.524               |
|                | 연령                    |    | -.009               | -0.137             | .021                 | 0.365                |
|                | 학력                    |    | .140                | 2.213 <sup>*</sup> | .123                 | 2.114 <sup>*</sup>   |
|                | 월평균 수입                |    | .100                | 1.414              | .062                 | 0.953                |
|                | 배우자 유무 <sup>2)</sup>  |    | .123                | 1.519              | .030                 | 0.393                |
|                | 종교 유무 <sup>3)</sup>   |    | .144                | 2.288 <sup>*</sup> | .112                 | 1.933                |
|                | 건강상태                  |    | .124                | 2.001 <sup>*</sup> | .060                 | 1.058                |
|                | 부모 부양여부 <sup>4)</sup> |    | .012                | 0.200              | -.017                | -0.307               |
|                | 자녀수                   |    | -.007               | -0.091             | -.029                | -0.397               |
| 직업특성           | 직업 만족도                |    |                     |                    | .372                 | 6.381 <sup>***</sup> |
|                | 직업 몰입                 |    |                     |                    | .199                 | 3.506 <sup>**</sup>  |
| F              |                       |    | 3.371 <sup>**</sup> |                    | 8.081 <sup>***</sup> |                      |
| R <sup>2</sup> |                       |    | .108                |                    | .263                 |                      |
| $\Delta R^2$   |                       |    |                     |                    | .155                 |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배우자 유무(없다=0, 있다=1), <sup>3)</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4)</sup>부모 부양여부(안한다=0, 한다=1)

###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직업 만족도, 직업 몰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표 8]에서 처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 $\beta=.140$ ,  $t=2.213$ ,  $p<.05$ )과 종교 유무( $\beta=.144$ ,  $t=2.288$ ,  $p<.05$ ), 건강상태( $\beta=.124$ ,  $t=2.001$ ,  $p<.05$ )가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0.8%였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의 생활비나 병원비, 여가생활 등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거나 노후를 위해 절약하거나 저축하는 등 경제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 $\beta=.123$ ,  $t=2.114$ ,  $p<.05$ )과 직업특성의 직업 만족도( $\beta=.372$ ,  $t=6.381$ ,  $p<.001$ ), 직업 몰입( $\beta=.199$ ,  $t=3.506$ ,  $p<.01$ )이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력이 높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거나 현재의 회사 및 부서에 몰입하고 있을수록 경제적으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6.3%로 1단계보다 15.5% ( $\Delta R^2=.155$ ) 증가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가를 밝히기 위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반월·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중년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 분석에서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준비를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들[20][44]과 달리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반월·시화지구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부모부양 여부가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영향관계가 일관성 없이 나타난 선행연구들[18-20]과 같이 연구 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건강상태가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 학력, 월 평균수입, 종교, 그리고 자녀수가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과 유사하나, 성(性)과 부모부양 요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성(性)의 경우는 여러 연구들[18-20]등에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이 반월·시화지구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리고 부모부양 관련 요인의 영향관계분석에서 강유진[13]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양순미·홍숙재[37]와 신승희[44]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직무만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업몰입은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특성이 부분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대 밖이다. 현대의 직장인 동료들끼리 규칙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형성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53],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계획성이 높고[47], 일에 대한 태도가 은퇴준비와 영향이 있어[54], 업무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중 직업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분석에서 요인 변수들의 설명력( $R^2$ )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신체적 노후준비: 1.6%, 사회적 노후준비: 1.2%, 경제적 노후준비: 15.5%), 이는 선행연구[55]에서 나타난 라이프스타일 요인의 설명력( $R^2=44.1\%$ )에 비교해 매우 낮은 설명력이다. 이는 직업특성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월·시화공단과 같이 비교적 근무 환경과 근무조건이 열악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 복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이들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 중 학력, 월평균수입,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수 등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있고 또한 이들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바쁜 중에도 가급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노후준비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게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둘째,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기업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반월·시화공단의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년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였다. 즉 성별이나 연령별 빈도가 편기되게 수집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본선정에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연구결과 직업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그 설명력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론 등에서 기대하는 바와 차이가 있다. 향후 보다 계획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볼 것이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른 직업특성과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인터뷰 등)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몇 개의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공단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와의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1] R. L. Kahn, "Successful aging: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a concept," In L. W. Poon, S. H. Gueldner & B.M. Spouse(Eds) Successful aging and adaptation with chronic diseases, New York: Springer, pp.55-69, 2003.
- [2] P. B. Baltes and M. M. Balte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3] S. B. Laditka, S. J. Corwin, J. N. Laditka, L. Liu, W. Tseng, B. Wu, R. L. Beard, J. R. Sharkey, and S. L. Ivey, "Attitude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Vol.49, No.S1, S30-S9, 2009.
- [4] 홍현방, 성공적 노화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5] 강인,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0, pp.95-116, 2003.
- [6] 백지현,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 학회지, Vol.11, No.1, pp.80-91, 2005.
- [7] 성혜영, 조희선, "Rowe와 Kahn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Vol.26, No.1, 105-123, 2006.

- [8] R. J. Havighurst and R. Albrecht,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1953.
- [9]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10] 박길성,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Vol.45, No.2, pp.109-139, 2002.
- [11] 박희봉,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 논집, 제17권, 제3호, pp.709-728, 2005.
- [12] 홍성희, 김순미, 김혜연,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24권, 제3호, pp.95-115, 2006.
- [13] 강유진, “한국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16, No.4, pp.159-174.
- [14] 여운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연구,” 한국 노년학, 제25권, 제1호, pp.21-36, 2005.
- [15] 박창제,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 연구, 제24권, 제4호, pp.139-166, 2008.
- [16] 백은영,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 연구, 제24권, pp.27-51, 2008.
- [17]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신체적·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pp.275-289, 2000.
- [18] 임경자,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9] 최정숙, “내·외 통제성이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희행정논총, Vol.20, No.1, pp.45-70, 2007.
- [20]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1] 김남순,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개인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2]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J. C. Glass and B. Kilpatrick, “Gender comparisons of baby boomer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Educational Gerontology*, Vol.24, pp.719-745, 1988b.
- [24] K. Perkins, “Social (in)security: Retirement planning for women,” *Journal of Women and Aging*, Vol.7, No.1-2, pp.737-753, 1995.
- [25] V. Richardson, and K. M. Kilty, “Adjustment to Retirement: continuity vs Discontin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3, pp.151-169, 1991.
- [26] K. M. Kilty and J. H. Behling,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26, No.5, pp.525-530, 1985.
- [27] V. A. Bengtson and K. R. Alle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pplied to Families Over Time,”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Y:Plenum Press, 1993.
- [28] 김의숙,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29] 김성희,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30] 김기태,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1] 지민선, *농촌 중년 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배문조, 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Vol.42, No.7, pp.89-102, 2004.
- [33] 최정숙, “내·외 통제성이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희행정논총, Vol.20, No.1, pp.45-70, 2007.
- [34] 김미경,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35] 김문을,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6] 송명숙,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7]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 이승아, 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41-146.
- [38] 김병윤,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9] 성말순, 중년 여성의 노후 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40] 손덕순, “용인시민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인학연구, Vol.2, No.1, pp.134-159, 2006.
- [41]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중년층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Vol.43, No.1, pp.135-156, 2009.
- [42]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43] 임희정,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4] 강영숙,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 의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45] 신승희,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6] S. Gee and J. Baillie,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Vol.25, No.2, pp.109-128, 1999.
- [47] 이승아,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48] 호정화, 교사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49] 신계수, 조성숙,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96-312, 2011.
- [50] S. M. Colarelli and R. C. Bishop, “Career commitment: Functions, correlates, and management,” Group and Organizational Studies, Vol.15, pp.158-176, 1990.
- [51] P. C. Morrow and R. E. Wirth, “Work commitment among salaried professiona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4, pp.40-56, 1989.
- [52] P. C. Morrow,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work commitment,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Inc. 1993.
- [53] R. J. Havighurst and R. Albrecht,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1953.
- [54]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55] M. Szinovacz, “Preferred retirement timing and retirement satisfaction i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4, No.4, pp.301-317, 1987.
- [56]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저 자 소 개

최 명 화(Myung-Hwa Choi)

정회원



- 2010년 2월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복지전공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
- 2012년 4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상담, 노인 일자리창출

최 수 일(Soo-Il Choi)

정회원



- 1974년2월 : 연세대학교(공학사)
- 1997년2월 : 연세대학교(공학석사)
- 2007년2월 : 호서대학교(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교 교수

<관심분야> : 경영전략, 조직론, 리더십, 노인복지